國史館論叢 第58輯

한국의 建軍과 軍部 연구(1945~1960)

梁 炳 基*

Ⅰ. 서 론
Ⅱ. 군부의 정치 정향
1. 대외적 안보 정향
2. 주관적 통제 하의 안정 정향
3. 근대적 성장 정향
Ⅲ. 군부의 파벌 구조
1. 창군기의 파벌 형성과 주도권의 변화
2. 제 1~2 공화국 시기의 파벌 형성과 주도권의 변화
Ⅳ. 결 론

Ⅰ. 서 론

한국의 현대정치사는, 한국의 軍部와 불가분의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 그것은 1961년의 5·16군사쿠데타로부터 1993년 2월까지 30여년의 기간 동안 군부가 한국 정치의 주도권을 좌우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군부에 대한 역사적 고찰없이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권 이전의 한국 군부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정치에 개입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그 政治化의 양상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일정한 정치집단이 정치에 개입하기까지에는 그 집단의 政治意識·행태의 동기 형성과 組織化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군부의 정치화와 관련된 정치의식의 형성과정에 대하여는 政治 定向(political orientation)[1]의 측면에서, 조직화의 양상은 派閥性(factionalism)을 중심으로

* 淸州大學校 政治外交學科 敎授.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된 군부의 정치 정향과 파벌성에 대한 관련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세계권의 군부에 있어서 그들의 정치 정향, 즉 정치에의 개입 의지나 태도 성향과 관련한 중요한 변수는 군부가 국가 통치 및 국가 발전에 대한 의무와 능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군 장교단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믿음을 군장교의 통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영명 교수는 이러한 군부의 통치 의식이 민간 정치에 대한 반작용을 통하여 성장하게 된다고[2] 말한다. 한편 이들 군부는 집권 과정을 전후하여 그들의 이념으로서 안정(stability)·안보(security)·발전(development)을 선호·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로 군부는 사회·정치적 안정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군부의 보수주의적 속성과 관련이 있다. 아브라함손(Bengt Abrahamsson)에 의하면, 군은 질서·위계·규정에 집착하는 보수성을 띤다고[3] 한다. 이러한 군부의 보수적 성향이 군부로 하여금 사회·정치적 안정을 선호하게 하며, 일정 체제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물리력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군부의 안보 정향이다. 제3세계권의 군부는 국가 안보 개념의 범위를 통상적인 국가방위로서의 군사부문만이 아닌 정치·경제영역의 측면까지 포괄·확장시키는 경향이 있다.[4] 즉, 군부의 존립 근거를 대외적인 국가 방위에서 대내적인 안보로 전환하여 정치개입에 직업적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 것이다.[5]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제성장과 관련된 군부의 발전 정향이다. 군부는 자신들이 국가이익을 대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조직·기술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부는 그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장을 위하여 민족주의 이념에 선차성을 두어 경제발전을 지향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권에서 집권한 군사정권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발전 정향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던 것이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군부의 정치 정향이 대외적으로는 安保 指向, 대내 정치적 측면에서는 安定 指向, 대내 경제적 측면에서는 成長 指向의 정

---

1) 정치 정향이란 어떠한 정치적 대상(political object)에 대한 개인의 정향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위상이나 방향에 대한 결단과 감각을 의미한다. 정치 정향의 대상으로는, 전체로서의 정치체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1966) pp. 33~34. 따라서 군부의 정치 정향이란 정치 현상에 대한 군부의 인식 정향과 태도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김영명,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한울, 1985) p.59.

3) Bengt Abrahamsson, "Elements of Mlitary Conservatism : Traditional and Modem" (M. Janowitz et. al., eds., On Military Ideology, Belgium : Rotterdam University Press, 1971) p. 68.

4) Byung-Hoon Suh, "Structure and the Political Actor : An Interactive Perspective for Ideology and Economy in Four Military Regimes"(Ph. 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1987) p. 56.

5) Edwin Lieuwen, "The Problem of Military Government"(Robert Wesson ed., New Military Politics in Latin America, New York : Praeger, 1982) pp. 2~3.

6) Byung-Hoon Suh, op. cit, p. 57.

향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군부가 집권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군부 통치 양태를 보인다고[7] 할 수 있다. 첫째, 보다 더 制度化되고 職業化된 군부는 하나의 제도로서 즉, 군부 전체가 군부 내 서열적 규범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한다. 둘째, 군부의 제도화 및 직업화의 수준이 낮은 경우, 군 장교의 통치 의식 수준 또한 낮으며 군부는 분파나 파벌의 형태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당 정치에 바탕을 둔 類似 民間化(quasi-civilianization)를 통하여 제도적 통치 바탕의 결여를 상쇄하려 한다.

따라서 군부의 파벌성이란 군부의 제도화·직업화 수준의 저급성에서 비롯되는 군부 내적 현상이다. 파벌성은 군부의 정치개입 양상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군부의 파벌성은 파벌 외적구조와 내적구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파벌 외적구조는 군부 내의 파벌이 군 통수권자나 정치세력과 갖는 수직적 관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파벌 내적구조는 군부 내 파벌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군부의 수평적 파벌 관계는 정치 현상에 대한 태도성향과 관련하여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군의 정치개입을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군부 내 파벌 집단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집단 간에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의 연구목적과 이론 고찰에 따라 한국 군부의 정치 정향과 파벌성을 역사적 접근법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군이 창설되고 집권 이전의 군부가 형성되어가는 1945~1960년의 기간이다. 한편 본 연구의 주제는 집권 이전 한국 군부의 정치 정향과 파벌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군부의 정치화 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보려는 문제의식이 선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자료의 보완 등에 의하여 연구대상의 정밀성 보완을 위한 후속작업이 계속되어져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Ⅱ. 군부의 정치 정향

한국의 군부는 해방 이후 분단 냉전체제 하에서 조성된 대외적 안보위기와 국내의 정치·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됨으로써 안보·안정·성장 정향의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1945~1948년의 미 군정하에서의 創軍期와 1948~1961년의 1~2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한국 군부의 정치 정향이 국가 안보·사회 안정 및 국가 경제 부문

7) 이하의 내용은 김영명, 앞의 책 pp. 143~144참조.

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1. 대외적 안보 정향

창군기와 제1~2공화국 시기의 대외적 안보 정향은, 한국군 창설 이후에 봉착하게 된 주요한 대외적 국가 위기국면으로서의 肅軍과정과 한국전쟁 및 4.19혁명 시기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시기에 집중된 국가적 위기 극복의 측면에서 한국 군부가 나타내 보인 안보 정향이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창군기의 안보 정향은 군부 외적영향 요인으로서의 일본 軍國主義·미국의 한국군 창설 과정·북한의 대남 정책 및 군부 내적으로 진행된 숙군과 反共理念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창군기 한국 군부의 안보 정향 형성과정에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1930년대 이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과 같은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도 동일한 戰時體制가 강요되었는데, 이것이 해방 후 한국 군부의 정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중일전쟁 발발(1937.7) 이후에 시행된 1938년 2월의 육군특별지원병제와 태평양전쟁 발발(1941.12)에 따른 1943년 10월의 학도 특별지원병제 및 기타 군속 등의 형태로 한국 청년 422,360명이 일본군에 징집된 사실은[8] 그러한 역사적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자발적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9]와 滿洲國 奉天(지금의 瀋陽)·新京(지금의 長春) 군관학교[10]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군 출신들이 해방 이후 한국군 창설과정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한국 군부는 일본 군국주의의 전시 총력 안보체제와 반공 정향의 영향[11]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

8) 軍史硏究室 편, 《國軍의 脈》(陸軍本部, 1992) p. 460.

9) 187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개교 이후 1883년 한국인으로서는 朴裕宏이 최초로 입교한 이래 1945년 일제의 패망 시기까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은 114명이며 만주군관학교로부터의 편입생 27명을 추가하면 총 141명이었다고한다(李基東, 《悲劇의 軍人들-日本 陸士 出身의 歷史》, 一潮閣, 1982, p. 2). 이들 일본 육사출신 한국인들이 해방 이후 한국군의 수뇌부를 형성하게 된다.

10) 1931년의 만주사변에 이어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한 일본은 關東軍을 통하여 이 지역을 통치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관동군 장교 양성을 위하여 '滿洲帝國 陸軍士官學校'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1932년부터 2년제 간부 훈련소로서 '봉천군관학교'로 운영되다가 9기생까지 배출하고 폐교한 다음 1939년부터는 정규 4년과정의 '신경군관학교'가 신설되었다(金潤根, 《해병대와 5·16》, 汎潮社, 1987, pp. 31~33 ; 조갑제, 《박정희 ① : 불만과 불운의 세월(1917~1960)》, 까치, 1992, p. 88). 한국인들은 봉천군관학교 4기생부터 입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방 후 한국 군부 안에서 만주군 계열의 인맥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11) 국가의 정점으로서의 천황과 전통적인 가치의 존속·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그리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관료들의 엘리트주의적 지배구조가 일본 군국주의의 특

해방 후 한국 국가 형성의 기본틀은 미 군정과 韓國民主黨 및 李承晩을 중심으로 한 국내 우익 세력의 삼자동맹(triple alliance)을 주축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미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한반도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의도는 미국식 대의 민주제를 가진 親美 반공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미 군정은 한국군의 창설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미 군정은 1945년 11월 13일 "조선의 종국의 독립을 준비하며, …안전에 필요한 병력을 급속히 준비하며, 民間 安寧의 유지와 민간의 무질서에 대하여 민권을 옹호하는 민간경찰기관의 보조 及 …국민의 정부혁명을 보호"[12]한다는 명분 하에 군정 법령 제 28호에 의거하여 군정청 내에 國防司令部(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ce)를 설치하였다. 한편 국방사령부 예하에 軍務局(군사국으로 호칭하기도 함)과 警務局을 병설하였고 군무국 내에는 육군부와 해군부를 두었으며, 초대 국방사령부장에는 1945년 11월 14일 미 군정 헌병사령관인 쉬크(L. E. Schick)준장이 취임하였다.[13] 또한 상기 군정 법령 28호에 의하여 국방사령부가 설치되면서 1945년 11월 현재 30여 개의 난맥상을 보이던 한국 내의 모든 私設 軍事團體[14]는 1946년 1월 21일자로 미 군정에 의해 불법화되고 해체되기에 이른다.[15] 이 국방사령부는 그 후 1946년 3월 29일 군정 법령 제64호에 의하여 國防部(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로 개칭된다. 그런데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소련측으로부터 '국방'이라는 호칭에 대한 항의가 제기되자 미 군정은 1946년 6월 15일 군정 법령 제86호로 국방부를 國內警備部(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한국측에서는 국내경비부란 호칭을 못마땅하게 여겨 별도로 統衛部란 호칭을 사용하였다.[16]

국방부가 통위부로 개칭되면서 미 군정은 통위부장 프라이스(T.E. Price)의 고문으로 광복군 참모총장을 지낸 柳東悅을 취임시켰는데, 1946년 9월 12일 미 군정이 군정청내의 각 한국인 부처장에게 행정권을 이양하면서 유동열이 통위부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바로 이 통위부가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방부가 되는 것이며, 1948년 8월 16일 유동열의 통위부장 이임과 함께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국무총리인 李範奭이 겸임으로 취임[17]하게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부에 동조하는 우익세력과 재계가 결합하여 국가건설을 위한 총력전 체제화와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팽창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좌익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우영, 〈박정희 통치이념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1991, p. 97).

12) 韓國法制硏究會 編, 《美軍政 法令總覽》(韓國法制硏究會, 1971) p. 145.

1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韓國戰爭史》 第1卷: 解放과 建軍(國防部, 1967) p. 256·304.

14) 당시 이들 사설 군사단체는 해방정국의 사회·정치상황을 반영하여 좌·우익 분립현상을 보였다. 좌익계열의 대표적인 군사단체로는 조선학병동맹(1945.9.1 결성)과 조선국군준비대(1945.8.17 결성) 등이, 우익계 군사단체로는 조선임시군사위원회(1945. 8월말 결성)와 학병단(1945.12.16 결성) 등이 난립하고 있었다(위의 책 pp. 247~256).

15) 위의 책 pp. 261~262.

16) 위의 책 pp. 304~305.

된다.

한반도를 5개년간 신탁통치하기로 한 모스크바 결정(1945.12.27)에 의하여 미국측은 한국 내에서의 정규군 창설에 대하여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주한 미군사령관인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한국에 치안군을 창설할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미국이 이미 필리핀에서 적용한 바 있는 경비대(Constabulary)를 창설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증원하는 동시에 정부수립의 기초를 닦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12월 20일 하지의 이같은 구상에 의거하여 미 군정 2대 국방사령부장 챔페니(A.S. Champeny) 대령은 한국 내 치안병력의 증강을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2만 5천명 병력 규모의 경찰예비대(Police Reserve Force) 양성을 위한 '뱀부 계획'(Bamboo Plan)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뱀부계획'이 하지에 의하여 미 국방성에 건의되 어 인가됨으로써 南朝鮮 國防警備隊가 창설되기에 이른다. 이같이 하여 1946년 1월 14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앞서의 미 군정 법령 제28호 제1조 국방사령부의 설치근거와 '뱀부 계획'에 의거하여 한국 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예비대의 목적으로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의 군무국 예하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남조선 국방경비대의 설치령은 군정 법령 제86호(1946.615)로 추인되었다. 이후 남조선 국방경비대는 군정 법령 86호에 의하여 朝鮮警備隊(Korean Constabulary)로 개칭되며, 정부수립 후인 1948년 9월 1일에는 남조선 과도정부 조선경비대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입되고, 1948년 9월 5일에는 육군으로 개편된다.[18] 이에 따라 미 군정은 각 도별로 연대 창설작업에 들어갔는데, 1946년 말까지 모두 9개 연대가 창설되었다. 이어 1946년 2월 7일자로 남조선 국방경비대 총사령부가 제1연대 본부인 태릉에 설치되었다. 남조선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정부수립후 1948년 11월 30일 국군 조직법이 제정되면서 육군본부로 개칭되었다.[19]

한편 海防兵團이 창설(1945.11.11)된 이후 미 군정 법령 제86호(1946.6.15)에 의거하여 통위부 예하에 있던 조선 해안경비대는 정부수립후인 1948년 11월 30일 해군으로 편입되었다.[20] 역시 통위부 직할부대인 항공부대(1948. 5.15 창설)를 모체로 하여 시작된 육군 항공군 사령부가 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되어 공군으로 독립하였다.[21] 이리하여 정부수립 이후 한국군은 육·해·공군 3군의 편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는 그 첫 과업으로서 1945년 12월 5일 軍事英語學校(Military Language School)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와 조선경비대 간의 언어소통과 통역관 양성을 위한 것이었다.[22] 군사영어학교(군영)는 1946년 4월 30일 폐

---

17) 위의 책 pp. 305~309 및 國防部 戰史編贊委員會 편, 《國防史》 1(國防部, 1984) pp. 146~148.
18) 國防部 戰史編贊委員會 편, 《韓國戰爭史》 第1卷, pp. 260~261, 263, 266~267, 272, 305 참조.
19) 위의 책 p. 305.
20) 위의 책 pp. 550~551, 556, 567.
21) 위의 책 pp. 593~600.
22) 군사영어학교에 관하여는 위의 책 pp. 258~260 참조.

교할 때까지 총 110명의 경비대 장교를 배출하였다. 미 군정은 원래 일본군·만주군·광복군 출신자 중에서 각각 20명씩을 선발하여 60명을 군영에 입교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좌익계 군사단체인 국군준비대와 학병 동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고 반대하였고 광복군 출신은 정통성을 주장하여 입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군영 입교자들은 만주군 출신 元容德과 일본군 출신 李應俊이 추천한 일본·만주군 출신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23] 군영 임관자 110명의 출신을 살펴보면, 일본군 출신이 87명, 만주군 출신이 21명이었고 광복군 출신은 2명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창군의 주역으로서 이들에 의하여 초기의 경비대가 움직이게 되며, 경비대에서 가장 빨리 진급하여 정부수립 후에는 거의 장성급으로 승진함으로써[24] 이후의 한국군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군영이 폐교된 이후 급증하는 경비대 장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46년 5월 1일 南朝鮮 國防警備士官學校가 설립되었으며, 1946년 6월 14일에는 朝鮮警備士官學校로 개칭되었다. 정부수립 후인 1948년 9월 5일 陸軍士官學校로 개칭될 때까지 1기에서 6기에 걸쳐 총 1,254명의 군 간부를 배출하였다. 이 중 1기에서 4기까지는 귀국이 늦어져서 군영에 입교하지 못한 군사 경력자가 대부분이었으며, 5기와 6기는 대부분 단신으로 월남한 북한(이북)출신 반공우익청년들이었다. 1951년 10월 30일 경남 진해에서 육군 본부 직할의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재창설되었다.[25]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군은 창설되었으며, 미 군정은 창군 과정에서 주로 해방 이전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 경력자들을 한국군의 간부로 충원함으로써 친미 반공적인 한국 군부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해방 이후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게 된 북한의 대남 정책도 창군기 군부의 안보 정향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체제의 정책목표를 '全 한반도의 공산화'에 두고 이에 따라 대남 정책 및 군사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즉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여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국가 목표였던 것이다. 북한은 1940~1950년대 기간 중 북한을 혁명기지로 하여 북한 중심의 일방적 확장 노선에 의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촉진한다는 정책방향 하에서 민주기지 노선을 설정[26]한 바 있고, 이러한 민주기지 노선은 한국전쟁의 수행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대남 정책은, 직접적 군사 대치집단인 한국 군부의 창군기 안보 정향과 그 정당성의 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이 되었으며, 대외적 안보로서의 국가 수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군부의 舊職業主義(old professionalism)[27]가 상존하게 되는 원인

---

23) 韓鎔源, 《創軍》(博英社, 1984) pp. 72~74.
24) 위의 책 p. 74와 許璋, 〈초기 군사제도와 軍部의 구조 형성〉(崔章集 編, 《한국현대사》 Ⅰ, 열음사, 1985) p. 403.
2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韓國戰爭史》 第1卷, pp. 359~361.
26) 북한의 민주기지론에 관하여는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8~28 참조.

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의 창군기 안보 정향 형성에 영향을 미친 군부 외적요인에 이어, 창군기 군부 내 左翼 排除의 과정도 한국 군부의 안보 정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8년의 제주도 4.3항쟁 시기 현지 주둔 진압군이던 11연대장(朴珍景 중령)이 연대 내의 좌익 군인에게 피살(1948. 6.19)되고[28] 연이어 4.3 항쟁 진압 증원 병력으로 출동하려던 여수 주둔 14연대 내에서 좌익 군인 주도에 관한 반란사건(1948.10.19.)이 발생함에 따라[29] 창군기의 한국군은 군 내부의 좌익 진압이라는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좌익 진압을 계기로 하여 숙군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직속의 방첩대와 그 후신인 육군 특무부대의 주도에 의한 숙군 작업은 1948년 10월부터 1954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자가 1,677명이나 되었다. 이들 중에는 군사영어학교와 경비사관학교 1.2.3기 출신장교들이 80여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30] 한국전쟁 전인 1949년 7월까지에는 4,749명의 좌익계 군인들이 제거되었다.[31] 이로써 군 내부의 좌익은 완전히 근절되기에 이르렀다. 즉 창군기 군대 내에 존재하던 좌익세력들을 배제하기 시작한 이래로 정부수립 후 숙군작업을 본격화하여 좌익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에서 한국 군부의 안보 정향이 형성되었다.

숙군 작업과 아울러 군 내부에서는 반공이념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부수립 후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범석에 의하여 1948년 11월 29일 국방부 내에 반공이념 교육을 목적으로한 정치국(후에 정훈국으로 개칭)이 설치되었으며, '국군 3대 선서'를 통하여 공산주의를 주요한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공이념을 적극 주입하고자 하였다.[32] 이와 함께 미 군정 후기에 이르러 우익에 의한 경비대 장악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장교 충원기구로서의 경비사관학교에는 5기의 경우 북한 출신이 2/3를 점하고, 6·7·8기도 이북 출신이 다수 입교하는 등, 경비사 5기생 이후부터 민간인과 우익 청년단체들의 단원들과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서북 청년회 및 대동강 동지회 출신 청년들이 대거 입대 하였다. 그들은 군의 우경화[33]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창군 당시의 이러한 반공 안보 정향은 한국전쟁을 통한 분단 고착화의 과정에서 더욱

---

27) 구직업주의라는 용어는 헌팅턴이 말하는 '국가의 군사안보에 책임을 지며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공식적 전문직'을 의미한다.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Cambridge, Mass. :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p. 71~72.

28) 당시 11연대의 상황은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편, 《韓國戰爭史》 第1卷, pp. 301~303, 441 참조.

29) 14연대의 반란 상황은 위의 책 p. 327, pp. 452~482 참조.

30) 國軍保安司令部, 《對共 三十年史》(國軍保安司令部, 1978) pp. 66~67.

3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韓國戰爭史》 第1卷, p.4 96.

32) 위의 책 pp. 310~312.

33) 군의 우경화 양상은 韓鎔源, 《創軍》 pp. 84~85와 許璋, 〈초기 군사제도와 軍部의 구조형성〉 pp. 409~410 참조.

강화된다. 남북한에 각각 강력한 친미·반공-친소·공산정권의 수립을 기도한 미국과 소련 주도의 냉전체제 하에서 북한의 총공세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남북한과 기타 참전국 쌍방간에는 총 3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34] 이같은 인적 손실·피해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35]

동족간의 엄청난 살상을 동반한 한국전쟁은 잠정적이었던 남북한 분단체제를 고정 분단적인 兩軸구조로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을 철저한 반공 국가로 만들고, 북한을 철저한 반미 국가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남한이 철저한 반공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남한 사회를 방어하는 한국 군부의 안보 정향을 형성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은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 군부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군부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반공 국가를 수호하는 국가 수호의 주역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군은 1948년의 5만 병력 수준에서 1954년에는 72만명까지 증강되었다가 1959년 이후에는 통상 60만 병력을 유지하게 되었다.[36] 한국군은 한국전쟁 과정 중에 현저한 양적인 증가를 하게 됨과 아울러 고도의 정치적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게 된다. 이같은 한국군의 양적 성장으로 인하여 한국군부는 남한 사회 내부에서 조직화된 가장 중요한 사회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한국전쟁 기간에 이어 종전 후에도 이승만 반공 독재체제 유지와 소련·북한 등에 대한 전진기지·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강력한 물리력으로서 그 정치적 지탱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60년 이승만의 독재정치에 저항하여 시작된 4월혁명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측면과 민족통일 지향운동으로서의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한국군의 감축과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협상도 주장하였다. 진보적인 정치세력들은 중립화 평화통일 방안을 주장하고 있었다. 북한측도 이같은 한국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자유 총선거 통일방안과 남북한 10만 감군론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張勉 정부는 북한측 제안을 거부하고 국제연합을 통한 총선거 통일방안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생과 진보세력의 통일론은, 한국사회 내부의 보수세력과의 사이에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

34) 국방부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인명 피해 손실은 50만명이며 민간인 피해도 약 100만에 이른다고 한다. 공산군(북한·중공군)의 인명 손실은 150~2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韓國戰爭 要約》, 國防部, 1986, p. 358).

35) 2차대전 이후의 주요 전쟁 중 10년간 지속된 월남전(1965~1975)에서의 민간인·군인의 사망자가 2백만명 임에 반하여,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에서는 사망자 수가 3백만명으로 최대의 인명 피해를 보이고 있다. Ruth Leger Sivard,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91(14ed, Washington, D. C. : World Priorities, Inc., 1991) pp. 24~25.

3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國防史》 1, p. 297.305·345와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國防史》 2(國防部, 1987) pp. 327~330,336.

그러나 대학생과 진보세력의 통일론은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자부하던 한국 군부의 구직업주의적인 반공·안보관을 자극·위협하여 군부 세력에 의하여 容共的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 열기와 논의는 정치권력의 획득 및 쿠데타 행위에 대한 정통성 확보에 부심하던 군부 세력에 정치적 제물'[37]이 되었고,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이같은 통일론을 반공논리로 전환시켜 자신들의 쿠데타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창군기에 형성된 한국 군부의 안보 정향은, 한국전쟁이라는 최대의 체제 위기를 군부가 앞장서서 극복해 냄으로써 구직업주의적인 국가 수호의 군부라는 성격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사회 내의 최대 조직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 한국 군부는 4.19 혁명기를 계기로 군부 내 일부 세력의 주도로 종래의 국가 수호의 군부라는 성격을 떠나 국가 통치의 주역으로서의 권력 지향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전환은 이승만의 군부에 대한 主觀的 統制와 연관성을 갖는 것이었다.

2. 주관적 통제 하의 안정 정향

미 군정 하의 창군 과정에서 일본군·만주군 계열 출신 중심의 한국군 간부 충원이 이루어져 민족적 정통성이 결여되었던 한국 군부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정치세력 기반이 취약하였던 이승만 정권의 정권유지 및 독재강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이승만에게 충성하는 군으로서 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 군정의 입장에서 보면, 38선 이남의 그들의 점령지에 대한 정치 및 사회 경제적 관리와 지배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그들이 조선경비대를 창설한 목적도 민족적 정통성 여부를 떠나 친미 반공국가로서의 남한 내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기능 내지는 경찰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附日 내지 친일의 前歷을 가졌던 창군의 주역들은 이러한 미 군정 및 이승만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여 체제 유지와 안정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정치적 생존 유지의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창군기의 군부가 사회 안정 정향을 형성하게 된 또다른 군부 외적요인으로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폭동·반란사건[38]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군은 그 창설 초기인 창군기의 경

---

37) 金東成, 〈박정희와 통일정책〉(동아일보사 조사연구실 편, 《現代史를 어떻게 볼것인가》 Ⅳ, 東亞日報社, 1990) pp. 219~220.

38) 남한체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1945년에서 1948년 기간중의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는 먼저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을 들 수 있다. 조공·남로당은 1946년 5월 24일의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이전까지는 합법 투쟁을 하였으나, 1946년 중반 이후 신전술을 채택하면서 합법·반합법 투쟁을 채택하여 좀더 폭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6년 9월 24일의 철도노조 전면파

비대 시절부터 이미 국방이나 대외적 안보의 역할과 더불어 대내적 안보의 역할 정향[39]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비대는 경찰과 함께 1946~1950년간 남한에서 일어난 각종 민중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즉 창군기의 국방경비대는 처음부터 무장봉기·게릴라전에 대응한 국내 안보의 영역에 경찰과 더불어 적극 개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경우에는 스테판(A. Stepan)이 말하는 新職業主義(new professionalism)[40]의 관점에서 볼 때, 군부가 제도화되고 현대화된 이후에야 습득하게 되는 국내 안보 重視의 입장이 이미 창군기로부터 그 맹아가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기간 중 한국 군부의 안정 정향 형성에는 이승만 정권의 군부에 대한 분리 지배 등 主觀的 文民統制[41]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승만의 정치기반 확보를 위한 군의 정치화는, 우선 군의 장악을 목적으로 한 그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군부 주요 지휘관의 인사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승만에 의한 한국 군부의 주요 간부 충원은, 중국군 계열을 선두로 하여 일본군 계열을 거쳐 만주군 계열 및 북한 출신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 1946~48년간의 광복군·중국군 계열에 이어 1948~52년간에는 이응준·蔡秉德·李鍾贊 등의 일본군 육사출신들이 군수뇌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2년을 계기로 하여 이승만은 다시 일본군 출신들을 군 수뇌진에서 배제시키고 대신에 한국 군부 내의 3번째 집단인 만주군 출신의 젊고 군 경험이 부족한 장교집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군에 대한 분리 지배방식은 군부를 정치화시키고 정치 군인을 산출시키는 배경 요인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승만은 또한 그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군을 동원·통제할 목적으로 새로이 군 통제기구를 신설하였는데, 육군 특무부대(1950.10.21 창설) 및 헌병총사령부(1953.3)의 설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42] 특무부대(부대장 金昌龍)와 헌병총사령부(사령

업·1946년 10월 1일의 대구 항쟁,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된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투쟁으로서의 제주도 4.3 항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14연대 반란사건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39) 창군기 한국 군부의 대내적 안보 역할과 관련된 내용은 강문구, 〈한국군부의 창설·변천과정-해방이후 한국전쟁까지〉(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123~125, 132~134 참조.

40) 군부의 기술적·직업적 전문화는 대내 안보 강령 및 이념과 관련된 군부의 역할 증대와 정치 개입을 유발하게 되는데, 스테판은 군부의 이러한 양상을 신직업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테판의 신직업주의 개념에 관하여는 Alfred Stepan, "The New Professionalism of Internal Warfare and Military Role Expansion"(Alfred Stepan ed., Authoritarian Brazil: Origins, Policies and Futur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7) pp. 51~53 참조.

41) 헌팅턴은 민군관계에 있어서 군에 대한 민간집단의 권력 극대화를 '주관적 문민통제'(subjective civilian control) 유형으로, 반면 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脫政治化시켜 군의 직업주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客觀的 文民統制'(objective civilian control) 유형으로 구분한다.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p. 80·83.

42) 이승만의 군 통제기구 신설·운영에 관한 내용은 Se-Jin Kim,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Chapel Hill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1) pp. 72~75 참조.

관 원용덕)는 군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안정을 위한 민간사회 부문에의 통제 기능도 수행하였다. 예컨대 이승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族靑系의 제거 작업에 특무부대가 개입한 사실이나,[43] 헌병총사령부가 반공포로 석방에 반대한 趙炳玉에게 테러를 가하고 이승만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金聖柱를 원용덕의 자택에서 살해한 사건 등이 그 실례이다.[44]

이승만은 군을 통한 정치 자금의 확보도 시도하였다. 따라서 그가 신임하는 정치 군인들에게 정치자금의 헌납을 요구하였다.

〈표 1〉 국방비 지출 추이(1950～1960) (단위 : %)

회계년도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평균
국방비 / 정부예산	54.5	53.4	44.0	61.9	55.1	52.4	52.7	45.8	45.0	41.8	50.7
국방비 / 국민총생산	5.9	3.4	3.8	7.4	6.7	6.4	6.9	7.4	7.5	6.0	6.1

출처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國防史》 2, p. 436에서 정리

〈표 1〉에서 보듯이 1950년에서 1960년까지 국가예산의 평균 50.7%와 국민총생산의 6.1%를 사용하고 1956년～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연평균 2억 3천만달러의 군사원조를 받는 가운데 1954～1961년까지 총 13억 8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아온[45] 한국군은, 이승만의 거대한 정치조직을 움직이는데 있어 필요한 정치자금의 주된 공급원이 되었던 것이다. 자금확보를 위한 불법행위로서 자주 사용된 것은, 자동차와 그 부속품·석유·식품 등과 같은 상품성 군수물자의 유통·판매와 60만 대군의 부식비 유용 및 軍納과정상의 뇌물수수 등의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1951년에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그 대표적 인 예이다.[46]

또한 이승만과 자유당에 의한 군의 정치적 동원과 활용도 군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

43) 金敎植, 〈實錄 金昌龍〉(《月刊 朝鮮》, 1982.10) pp. 270～272.
44) 李敬南, 〈實錄·政治將軍 元容德〉(《新東亞》, 1982.12) p. 127, pp. 131～135.
4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 1, p. 314.
46) 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기간중의 병력 증강 수요를 위하여 국민방위군 설치법(1950.12.21)에 의거하여 창설된 향토예비군 성격의 조직이었다. 1950년 12월 하순에 속성·편성된 국민방위군은 1951년 1.4 후퇴 시기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위군 사령부 고급간부 등에 의한 보급자원의 부정 착복으로 국민방위군 다수가 아사·동사·병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國防史》 2, pp. 352～354). 이 과정에서도 국민방위군 간부들에 의한 부정착복 공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용되었다고 한다(한길사 편집실, 〈史料: 1950년대의 政治的 중요사건〉, 陳德奎 외, 《1950年代의 認識》, 한길사, 1981, pp. 415～418 참조).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이승만과 정치노선을 달리하여 남북협상론을 주장하였던 金九가 북한 출신이며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인 육군 소위 安斗熙에 의하여 암살된 사건(1949.6.26)은 군과 정치와의 연관성 및 정치군인 등장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김구 암살사건 이후에도 군이 연계된 정치적 사건이 속출하였다. 예컨대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나타난 방위군 유지비의 정치자금 유용설·거창 양민학살 사건(1951.2.10.)[47]·徐珉濠의원사건(1952.4.24.)[48] 등이 그 예이다.

1952년 발췌개헌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산 정치파동(1952.5)에서도 군이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이종찬 육군참모총장과 같은 구직업주의적 정향을 지닌 군 간부급들의 거부·반발도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5월 25일 부산시를 포함한 경남과 전남북 일부 지역에 원용덕을 계엄사령관으로 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육군본부 내의 李龍文 장군과 朴正熙 대령을 중심으로 원용덕 장군의 계엄업무 견제를 위한 2개 대대의 파병론이 대두되었고, 장면을 추대하여 무력 쿠데타를 기도하려는 모의도 진행되었다.[49] 즉 이종찬 장군이 정치개입을 반대한 구직업주의적 입장을 지향한 반면, 박정희[50]·이용문·柳原植 등 일부 장교들은 민간정권을 전복시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입장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특히 부산 정치파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박정희가 부산 정치파동 이후 10년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쿠데타를 기도한다는점이다. 박정희는 부산 정치파동기의 쿠데타 기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진보당 사건 시기(1958~1959)인 1959년 11월 20일과 4.19 혁명 시기인 1960년 5월 8일, 그리고 4.19 혁명 1주년인 1961년 4월 19일과 1961년 5월 12일을 쿠데타 일자로 잡았다가 결국은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51]

이와 같이 이승만에 의한 군의 정치적 활용·동원은 군을 정치화시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조성하였으며, 이는 집권당인 자유당에 의하여서도 병행되었다. 金用雨 국방장관 때부터 자유당의 군부에 대한 압력이 가중된 데다가 경무대 및 李起鵬의 비서관 손에서 군 인사문제가 좌우되는 사례가 점증되었다. 군의 對共정보비가 자유당 국방분과

---

47) 거창 양민학살에 관하여는 한길사 편집실, 위의 글 pp. 418~423 참조.
48) 서민호 의원의 재판과정과 그 정치적 의미에 관하여는 Se-Jin Kim, op. cit., pp. 70~72 참조.
49) 부산 정치파동기의 군부 내 동향은 姜聲才, 《참軍人 李鍾贊장군》(서울 : 東亞日報社, 1986) pp. 75~76, p. 83·89·91 참조.
50) 5·16 쿠데타의 주도자인 박정희는 남로당과의 관련으로 1949년에 예편되었다가 1950년에 재임관은 되었지만, 그의 좌익 관련 경력으로 1950년에서 1960년까지 18차례에 걸친 보직 변경 속에서 불안정한 군인생활을 하였다(趙甲濟, 〈「南勞黨과 朴正熙소령」 연구〉 《月刊朝鮮》, 1989.12, pp. 303~321과 合同通信社, 〈朴正熙 대통령年表〉《合同年鑑 1980》, 合同通信社, 1980, pp. 107~108 참조).
51) 박정희의 연속적인 쿠데타 기도 내용에 관하여는, 韓鎔源, 《한국의 軍部政治》(서울 : 大旺社, 1993) pp. 164~167, 184~185, 214~222 참조.

위원의 교제비로 소진된데다가 軍納의 이권을 자유당원이 독점하였다.[52] 특히 자유당 집권세력은 1956년과 1960년에는 군부에 대하여 부정선거를 지령[53]하고 특무부대를 통하여 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군의 정치적 동원은 군을 정치화시키고 군부 내의 정치 군인과 非정치군인을 산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과 자유당은 군부에 대하여 주관적 문민통제 유형의 군 통수권을 발휘하였으며, 이러한 주관적 통제는 군의 정치화 현상을 가져와 초창기 한국 군부의 職業主義(professionalism)를 신직업주의로 전환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한국 군부에게는 숙군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수호의 대외적 안보유지 역할의 수행이 사회안정의 역할보다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근대적 성장 정향

창군 이후 한국 군부가 경제 부문에 대하여 갖게 된 관심과 태도는, 1961년 집권 이후 경제 정책의 수행과도 연관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군부의 집권 이전 성장 정향은 일본과 미국의 근대화 모형으로부터의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창군기에 한국 군부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일제 하의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만주군 출신 계열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향은 자연히 일본 근대화 모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를 박정희의 성장 정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일제 하의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에서의 군사교육 과정 속에서[54]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 모형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55] 이는 다른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의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근대화방식에 토대'[56]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박정희의 근대화에 대한 인식은 부국강병이라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 모형을 모방하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집권기

---

52) 韓國革命裁判史 編纂委員會, 《韓國革命裁判史》 第1輯(韓國革命裁判史 編纂委員會, 1962) pp. 914~915.

53) 姜聲才, 《참軍人 李鍾贊 장군》 pp. 149~150.

54) 박정희는 1940년 봄 만주국 관동군 장교 양성기관인 新京군관학교에 입교하여 1942년 3월 이 학교를 수석으로 수료하고, 동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57기로 편입하였다가 1944년 4월에 졸업하게 된다(조갑제, 《박정희 ① : 불만과 불운의 세월(1917~1960)》 pp. 87~94, 96~97).

55) 박정희와 대구 사범학교 동기생인 黃龍珠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의 집권 이후 경제개발은 일본 육사 유학 중 일본의 거대한 공업시설과 세계 최대의 전함·세계 최고의 전투기 생산 시설에서 받은 감명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한다(조갑제, 위의 책 pp. 96~97.

56) 李基鐸, 〈박정희와 일본〉(《現代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Ⅳ, 東亞日報社, 1990) p. 193.

간 중 그에 의하여 제시된 '민족중흥·국력배양·총화단결·유신체제'와 같이 2차대전 이전에 일본에서 사용되던 어휘를 구사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 사회가 채택한 경제발전의 모형은 미국의 근대화론에 의하여도 규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사회부문과 마찬가지로 한국 군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본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미국식의 근대화란 공업화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변화를 의미한다.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 특히 미국 사회를 발전된 사회의 정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근대화 발전 지향의 의식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1~2공화국 시기의 한국 군부는 민간사회 부문보다 발전된 경제적 여건하에서 사회부문을 주도하여 왔다. 한국군은 창군기부터 미국의 선진적인 군사 장비·기술과 접촉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의 전시 군사원조 형태로 도입된 공병·통신·차량 등의 각종 최신 장비[57]는 군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 내에서는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 장비를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 후 1~2 공화국 기간 중에 급증한 미국 등지로의 해외 군사유학도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군이 한국사회 내의 선진부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58]

〈표 2〉 해외 군사유학 현황(1949~1960)

연도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0	1960
인원수	12	—	317	814	1,038	1,193	1,751	1,080	1,402	1,076	1,357	1,569

출처 : 육군사관학교 편, 《군대와 국가 발전 : 자료집》(육군사관학교, 1981) p. 151에서 정리.

이와 같이 당시 군은 한국 사회 내의 최첨단 기술·장비를 보유한 최선진부문으로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 분야의 기술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창군 이래 1965년까지 각 군 기술학교인 통신·수송·항공·공병·항해·전자·비행학교 등의 454개 과정에서 57만 1,938명의 기술·인력을 양성·배출한 것이 그 실례일 것이다.[59] 더불어 군은 군이 보유한 장비를 통하여 도로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

57)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國防史》 1, p. 355, 358, 362, pp. 366~372 참조.

58) 1952년에서 1960년까지의 기간 중 군사 해외유학 인원은 기술학교를 주요 유학 대상으로 한 11,280명이었다. 반면, 이 기간 중 민간인 해외유학 인인은 5,423명으로 군 인원이 민간인의 2배를 상회하고 있었다(陸軍本部 軍史硏究室 編, 《韓國軍과 國家發展》, 花郎臺硏究所, 1992, pp. 201~203, 특히 p. 203의 〈표 9-12 해외유학 인원 비교〉 참조).

59) 육군사관학교 편, 《군대와 국가발전: 자료집》(육군사관학교, 1981) p. 100.

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미국의 근대화론의 영향과 창군기 이후 군이 보유한 기술 장비 등의 선진성은 민간부문보다 앞선 성장 정향을 한국 군부가 갖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군의 선진화는 국가 근대화의 주역으로서의 의식과 군대 내 기술·장비 관리능력에서 국가 관리능력으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성장 정향은 1961년 집권 이후 군사 정권 하에서 채택한 급속한 산업화 정책 추진의 의식적·과학기술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군부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의 분단체제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던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국가수호 군부로서의 대외적 안보 정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구직업주의가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해방정국에서의 좌우익 대립과 좌익의 진압과정에서 정치개입에 미온적이지만은 않은 신직업주의의 맹아가 이미 창군기로부터 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승만과 자유당에 의한 군의 분리 지배 및 정치적 동원에 의하여 가속화되었으며, 2공화국 시기 통일논의를 둘러싼 사회 혼란 및 감군 문제 등과 연계되어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의 선진적인 성장 정향도 군에 의한 국가 관리능력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미 창군기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군부 내의 신직업주의적 정치 정향이 구직업주의를 압도하여 정치개입에 나섬으로써 5·16군사쿠데타 이후에는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군부의 정치적 진출과 국가권력의 장악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한국 군부의 政治意識化 양상과 함께 아래에서 살펴볼 군부의 파벌 구조에 기초한 조직화 측면을 통하여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군부의 파벌 구조

한국 군부의 파벌 구조는 군부 외적구조 및 내적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군부 외적요인으로서 통치자 및 집권 정치세력 등과의 연관성을 들 수 있는데, 1공화국 시기의 통치세력은 군을 주관적 통제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이것이 군부의 파벌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군부 내적구조로서는 군부 내 파벌 간의 군에 대한 주도권 장악 경쟁 및 군부의 정치개입이나 관여 여부를 둘러싼 태도성향과 관련하여 파벌대립 양상이 표출되었다. 아래에서는 창군 과정과 1~2공화국 시기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파벌성이 군의 기능 및 역할을 어떻게 변절시켰으며, 군부 내 파벌 구조는 어

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1. 창군기의 파벌 형성과 주도권의 변화

창군과 경비대 시기에 있어서의 군 주요지휘관의 충원과정에서 나타난 초기 한국 군부의 형성과 성격은, 그것이 창군 이후의 군 내부와 이후 한국 정치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미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미 군정은 조선경비대의 간부 충원을 미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자들에 의존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의 군인들이었다. 초기 한국군의 출신계열과 그로 인한 파벌은 네개의 범주로 묶어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중국군·광복군 출신, ② 일본군, ③ 만주군 출신, ④ 분단과정에서 월남한 북한(이북)출신 장교들이 그것이다.

우선 미 군정에 의한 한국군 창설의 초기 단계에서 주요 지휘관의 위치에 오른 것은 광복군과 중국군 출신자들이었다.[60] 이들은 중국 내의 각종 군벌 또는 국민당 國府軍이나, 김구가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소속하여 일본군·중공군과 싸운 장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 군벌의 군관학교와 蔣介石이 세운 黃埔軍官學校 및 洛陽分校 韓人特別班 출신들이며[61], 정규 군사지식보다는 일본군에 대항하는 소규모 게릴라식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광복군 출신자들은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남한에서는 유일한 정통성을 갖는 군 경력자들이었다. 그러나 미 군정의 임시정부 불승인 정책으로 해방 후 주체적으로 군대를 창설하려는 의지가 좌절되었다. 광복군계는 일본군·만주군계가 주류인 경비대 창설에 대하여 친일파들과 같이 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1946년 6월 말 귀국한 광복군의 주력은 경비대를 '미국의 용병'으로 보고 경비사관학교에의 입교를 거부하였으나, 유동열이 통위부장으로 취임(1946.9.12)한 후에는 경비사관학교 7기와 8기로 다수 입교[62]하게 된다. 1946년 12월 23일에는 광복군 3지대장 출신 宋虎聲이 경비대 총사령관에 등용됨으로써 유동열과 함께 광복군 출신이 군 수뇌진을 구성하게 되었다.[63]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시기에 연대장급 이상 진출한 중국군·광복군 출신은 아무도 없었으며, 국방사령부·경비대 총사령부의 실무진은 일본육사·만주군 그리고 영어 수준과 학력이 높은 학병 출신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표 3〉은 창군

60) 許璋, 〈초기 군사제도와 軍部의 구조형성〉 pp. 388~389.
6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韓國戰爭史》 第1卷, p. 254와 陸軍本部, 《創軍前史》(陸軍本部, 1980) p. 266.
62)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박현채 外, 《解放前後史의 認識》 3, 한길사, 1987) p. 191.
6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韓國戰爭史》 第1卷, p. 382.

기의 주요 중국군·광복군 출신자 입대 상황이다.

〈표 3〉 창군기의 주요 중국군·광복군 출신 입대 상황

이 름	해방전 계급	한 국 군 경 력			해방 전 군경력
		기별	계급	중요 직위	
李 範 奭	중앙군 참장 광복군 정장			국방장관	雲南 講武堂, 光復軍 國內 挺進軍總司令官
柳 東 悅	광복군 정장			통위 부장	일본 육사 15기, 임시정부 초대 참모총장
金 弘 壹	중앙군 참장 광복군 참장	특임	중장	군단장	貴州 講武堂, 광복군 참모장
宋 虎 聲	중앙군 대장 광복군 참장	2기	준장	경비대 총사령관	河南 軍官講習所, 광복군 지대장
崔 德 新	중앙군 중좌 광복군 대좌	3기	중장	군단장	황포군관학교 10기
安 椿 生	중앙군 소좌 광복군 대좌	8특	중장	군 부사령관	낙양군관학교 분교 한인특별반
趙 介 玉	중앙군 대좌 화북의용군참장	4	중령	호국군 여단 참모장	保定 軍官學校 4기

출처 : 韓鎔源, 《創軍》 pp. 64~66에서 정리.

중국군 및 광복군 출신 계열의 몰락 이후 군 요직을 장악한 것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학병 및 지원병 등 일본군 경력을 지닌 자들이었다. 해방 직전까지 총 128명이 졸업 또는 재학중었던 일본 육사 출신 장교들은[64]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에서 중국군·연합군과의 실전을 통하여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군사지식과 전술을 습득하고 있어서, 해방 후 미 군정에 의하여 가장 우수한 군자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초창기 군 수뇌진과 실무진에 다수 진출하여 미 군정의 창군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군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이다. 일본 육사 출신의 대표자들로는 미 군정 국방사령부의 한국인 고문을 지낸 이응준을 비롯하여 金錫源·이종찬·채병덕 등이 있다.

학병 출신은 1941년의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3년 10월 1일 '대학생 징집 연기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징집된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 경력자들로 총 4,385명이 일본군에 복무하였다.[65] 학병 출신들은 강제 징집된 경우가 많았고 일본군에서 탈출, 연합군이나 광복군측에 귀환한 자들도 있었으므로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에 비해서 친일

64) 최초로 일본 육사에 입교한 한국인은 1883년의 11기 사관생도 박유굉이었고, 26기 洪思翊과 29기의 李垠(英親王)이 임관후 중장까지 최고위로 승진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좌(대령)급으로서 26기의 이응준· 申泰英 등이 있었다(李基東, 《悲劇의 軍人들-日本 陸士 出身의 歷史》 pp. 277~288).

65) 학병 또는 학도병이라고도 호칭되는데, 원래 명칭은 '학도 특별지원병'이다(張昌國, 《陸士卒業生》, 中央日報社, 1984, p. 38).

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덜 하였다. 또한 높은 학력에 영어 구사 능력으로 미 군정 실무자·고문관들의 인정을 받아 창군기의 군사영어학교와 정부 수립후 조선경비사관학교 7기 특별반으로 진출하였다.[66] 그러나 군사적 자질이 부족하고 종전 당시에 상위 계급자가 없어 미 군정기에는 하위 장교급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대표적인 학병 출신으로는 金桂元·張都暎·韓信 등을 들 수 있다.

〈표 4〉 창군기의 주요 일본군 출신 입대 상황

이 름	출신지	해방전 군경력		한 국 군 경 력		
		출 신 구 분	계 급	기 별	계 급	중 요 직 위
李 應 俊	평 남	일본 육사 26기	대 좌	군 영	중 장	육군참모총장(초대)
申 泰 英	서 울	〃 〃	〃	특 임	〃	육군참모총장(3대), 국방장관
金 錫 源	〃	〃 27기	〃	8 특	소 장	사단장
李 鍾 贊	〃	〃 49기	중 좌	특 임	중 장	육군참모총장(6대), 국방장관
蔡 秉 德	평 남	〃 〃	소 좌	군 영	〃	육군참모총장(2,4대)
李 龍 文	〃	〃 50기	〃	특 임	소 장	전남지구 경비사령관
金 貞 烈	서 울	〃 54기	대 위	공 군	중 장	공군참모총장(초대), 국방장관
劉 載 興	충 남	〃 55기	〃	군 영	〃	합참의장, 국방장관
李 亨 根	〃	〃 56기	〃	〃	대 장	육군참모총장(9대), 합참의장
丁 來 赫	전 남	〃 58기	소 위	군영 7특	중 장	군사령관
金 桂 元	경 북	학 도 병	〃	군 영	대 장	육군참모총장
張 都 暎	평 북	〃	〃	〃	〃	〃
李 厚 洛	경 남	〃	〃	〃	소 장	주미 무관
崔 泓 熙	서 울	〃	〃	〃	〃	군단장
徐 鍾 喆		〃	〃	1 기	대 장	육군참모총장, 국방장관
盧 載 鉉		〃	〃	3 기	〃	〃 〃
崔 慶 錄	충 북	지 원 병	준 위	군 영	중 장	육군참모총장
宋 堯 讚	충 남	〃	〃	〃	〃	〃
金 載 圭	경 북	〃		2 기	〃	군단장
李 哲 熙		〃		〃	소 장	방첩부대장

출처 : ①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李基東, 《悲劇의 軍人들》 pp. 277~288 에서 정리.
② 학병 출신은 張昌國, 《陸士 卒業生》 pp. 38~44에서 정리.
③ 지원병 출신은 張昌國, 위의 책 pp. 44~47과 韓鎔源, 《創軍》 pp. 58~62에서 정리.

66) 위의 책 pp. 39~42.

지원병 출신은 1938년 2월 2일 일제의 '육군 특별지원병령'에 의하여 일본군에 입대한 사람들이다. 일제에 의하여 동원된 지원병은 총 17,664 명이었는데, 이들이 해방 이후 대거 군에 참여하였다. 지원병 출신자들은 중국전선 등지에서의 실전경험은 있었으나 학병 출신자들에 비하여 학력이 낮았으며, 상명 하복의 수직적 명령계통을 엄수하는 등 군국주의적 기질이 강하였다. 이들은 창군 시기 하사관·사병으로 입대 후 장교로 승진한 자들이 많았다.[67] 대표적인 지원병 출신자로는 宋堯讚·崔慶錄·金載圭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표 4〉는 창군기의 주요 일본군 계열 출신 인사이다.

만주군 출신들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청의 마지막 황제인 溥儀를 옹립하여 세운 만주국에서 복무한 군인들을 말하는데, 이들 중 장교는 대개 2년제 봉천 군관학교와 4년제 신경 군관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특히 봉천·신경군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들은 東京의 일본 육사에 유학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 받았다. 이들은 해방당시 최고 중좌까지 승진했으나, 대부분은 위관급이었다. 만주군 출신의 대표자들로는 미군정청 국방사령부 고문으로 발탁되었던 원용덕과 丁一權·박정희 등이 있다.[68]

만주군 출신자들은 대개 북한(이북)이 고향이었으나 북한이 공산화됨에 따라 이남으로 월남하여 입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당시 만주군 속에 혼재되어 있던 5족(韓·日·滿·蒙·漢族) 간의 경쟁 속에서 생존능력이 배양되었고 만주군 복무시 일본군 고문관 제도에 숙달되어 있었으므로 미군정의 고문관 제도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정 시기에 일본군 출신들과 함께 군내 고위직에 두드러지게 진출하고

〈표 5〉 창군기의 주요 만주군 출신 입대 상황

이 름	출신지	해 방 전 경 력		해방후 한국군 경력		
		출신구분	계 급	입대기별	계 급	중 요 직 위
元容德	서 울	만군 군의병과	중 좌	군 영	중 장	헌병사령관
丁一權	함 북	봉천군관학교 5기	대 위	〃	대 장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白善燁	평 남	〃 9기	중 위	〃	대 장	〃
李周一	함 북	신경군관학교 1기	대 위	7 특		군사위원회 의장
朴林恒	함 남	〃	〃	8 특	중 장	군사령관
朴正熙	경 북	〃 2기	중 위	2 기	대 장	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李翰林	함 북	〃	〃	군 영	중 장	군 사령관
姜文奉	만 주	〃 5기	소 위	〃	〃	
李圭東	경 북	군무원		2 기	준 장	경리감
金昌龍	함 남	관동군 헌병대	伍 長	3 기	중 장	육군 특무부대장

출처 : 張昌國, 《陸士 卒業生》 pp. 18~23과 徐炳旭, 〈朴正熙의 滿軍人脈〉(《月刊 朝鮮》, 1986.8) p. 405에서 정리.

67) 위의 책 pp. 44~47.
68) 이 부분은 위의 책 pp. 18~19 와 Se-Jin Kim, op. cit., pp. 52~54 참조.

있었다.[69] 〈표 5〉는 창군기의 주요 만주군 출신자 입대 상황이다.

네번째로 중요한 분파는, 1948년의 14연대 반란사건 이후에 군부 내에서 부각된 북한 출신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군부 내에서 가장 전투적인 반공 우익세력이었으며, 후일 이승만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세력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창룡을 들 수 있다.

미 군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계열의 군 출신자들 가운데에서 주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들을 경비대 간부로 충원함으로써 친미·반공적인 한국군의 모체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창군 시기에 있어서 미군정이 다양한 전력의 소유자들을 군 간부로 충원함으로써 군부 내 파벌 형성의 외적요인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창군 과정에서의 군 간부 출신의 다양성은 군부 내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군부 내적 파벌구조가 형성되는 요인이 되었다.

2. 제 1~2 공화국 시기의 파벌 형성과 주도권의 변화

1946년 1월 한국군 창설 당시 5,453명에 불과하였던 병력은 1958년에는 72만명으로 증가하였다.[70] 이같이 한국군이 해방 이후 불과 10 여 년만에 132배의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기간 중의 전시 병력 수요 때문이었다. 국군은 창군 이후 한국전쟁 기간 중의 전시 동원체제를 통하여 비약적으로 팽창함으로써 군부 충원의 다양성과 양적 확대로 인하여 파벌이 형성되었고, 파벌 간의 갈등과 군의 정치화 현상을 포함한 군 위상의 변질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군부의 양적 성장 과정과 함께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의 군에 대한 분리 지배 방침으로 인하여 군부 내에서 파벌이 심화되었다.

미 군정이 종식되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유동열·송호성 등 광복군 출신 군지도층은 모두 군수뇌진에서 밀려났다.[71] 이들은 짧은 기간 경비대를 주도하였지만 군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에서 제일 먼저 밀려난다. 그 이유를 김세진은 이들이 정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고 서구적 사고방식·영어 구사력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미국 군사고문단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72] 또다른 주요한 요인으로는 김구와 이승만 사이의 권력투쟁에 있었다. 정치에서의 군의 잠재적 역할을 중시한 이승만은 정부수립과 그의 대통령 당선 이후 김구 계열의 군 간부를 배제하고 군 요직에 젊고 다루기 쉬운 장교들

69) 張昌國, 위의 책 pp. 18~20.
7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國防史》 2, p. 327, 330.
71) 許璋, 〈초기 군사제도와 軍部의 구조형성〉 p. 405.
72) Se-Jin Kim,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 pp. 43~45.

을 임명함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광복군 출신 계열은 김구 몰락 이후 제일 먼저 군부 내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승만은 중국군·광복군 계열을 배제한 이후 일본 정규군의 정예분자였던 일본 육사 출신들의 군사 능력 활용과 이들을 통한 중국계의 제거를 기도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중의 군사적 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이들에게 의존하였다. 또한 이들이 군 요직에 있는 동안에는 부산 정 치파동 시기의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의 구직업주의적인 입장에서와 같이, 한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군부의 정치적 활용을 시도한 이승만은 이들을 오히려 장애물로 인식하고, 군 수뇌진을 만주군 출신 간부들로 대체시켰다.[73]

만주군 출신은 일본군 계열 대신에 만주군 출신을 군 내부에서의 지탱점으로 삼으려던 이승만의 정치적 의도와 결부되어 1952~1959년의 기간 중 이승만의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된다. 한편 이들은 만주사변을 전후한 만주 지역의 정치적 환경과 비정규전 중심의 군사훈련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정반대되는 정치적 정향을 띠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주군 출신 장교들은 한국 군부내의 분파주의나 정치음모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북한 출신 장교들은 1948년의 14연대 반란 사건 이후에 군부 내에서 부각된 분파였다. 이들은 군부 내에서 가장 전투적인 반공 우익세력이었으며, 이승만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세력이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1948~1959년 기간 중 바로 이같은 북한 출신이나 만주군 출신을 기용하여 군부 내에 그의 정치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74]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창룡·정일권·白善燁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파벌 대립이 일시 진정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분리지배 방침과 군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대립으로 전후에 파벌 갈등이 재연되었다. 부산 정치파동을 계기로 이종찬 장군이 육군참모총장직에서 해임되자 4월혁명에 이르기까지 〈표 6〉과 같이, 백선엽·정일권·李亨根 등이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교대로 연임한다. 그리하여 군부는 백선엽을 중심으로 한 西北派(평안도파)·정일권을 중심으로 한 東北派(함경도파)·이형근을 중심으로 한 中南部派(이남파)로 분열· 대립하였다.[75]

이처럼 군부 내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세 분파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파가 김창룡의 이간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동북파의 許泰榮 대령이 1956년 1월 김창룡을 암살하게 된다.[76] 이 같은 양상을 통하여 당시 군부 내 파벌 갈등의 심

---

73) Ibid., p. 49.
74) Ibid., pp. 56~57.
75) 한용원, 《한국의 軍部政治》 p. 171.
76) 위의 책 p. 172.

〈표 6〉 1950~60년대 육군참모총장 및 합참의장(1952~1960)

육군 참모 총장			합 참 의 장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7 대	백 선 엽	52.7.23~54.2.13.	초 대	이 형 근	54.2.17~56.6.26.
8 대	정 일 권	54.2.14~56.6.26.	2 대	정 일 권	56.6.27~57.5.17.
9 대	이 형 근	56.6.27~57.5.17.	3 대	유 재 홍	57.5.18~59.2.22.
10 대	백 선 엽	57.5.18~59.2.22.	4 대	백 선 엽	59.2.23~60.5.31.
11 대	송 요 찬	59.2.23~60.5.22.			

출처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육군본부, 1970), 〈부록 2 연대표〉의 통수계통과 韓鎔源, 《創軍》 p. 209 에서 정리.

각상을 엿볼 수 있다. 김창룡사건을 계기로 자숙하던 군부는 일본군 지원병 출신 송요찬 장군이 1959년 2월 육군참모총장이 되어 일본군 지원병 출신들이 득세하게 되자, 중남부파는 다시 만주군 출신 비주류파·일본 육사 출신파·일본군 지원병 출신파로 갈리게 되었다.[77]

2공화국 하에서의 군부의 파벌 구조는 4월혁명을 전후한 整軍派의 출현으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정부 수립과 함께 경비대 체제로부터 국군 체제로 전환되면서 장교단의 숫자가 1년여 사이에 3배로 증가하여 군 人事분야의 적체현상[78]이 일어났다. 張昌國에 의하면 경비사 5기생은 대령을 7~8년간 달게 되었고, 육사 8기생은 소위에서 소령까지 진급하는데 4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데는 8년간이 소요되었다[79]고 한다.

이러한 군부의 인사 적체 현상에 대하여 무지했던 장면 정부가 '20만명의 감군' 선거공약에 따라 1960년 10만명을 감군[80]시키려 하자 장교들은 군부의 제도적 이익이 손상될 것을 우려했을 뿐 아니라 생계에 대한 불안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자유당 시기부터 군부의 정치적 도구화 현상과 장면 정권에 의한 군부의 집단이익(corporate interest)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서 정군파에 의한 정군운동이 전개된다. 4월혁명의 충격이 군부에 파급되어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군 고위층을 숙청하려는 육사 8기생(영관급) 중심의 정군파가 형성[81]됨으로써 또다른 군부 내의 파벌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

77) 위의 책 pp. 172~173.
78) 한용원, 〈군부의 정치개입과 그 내부의 파벌〉(《廣場》, 1991 여름) p. 128.
79) 張昌國, 《陸士 卒業生》 pp. 133~150.
80) 민주당 정부 하에서의 감군은 1960년 12월부로 29,100명의 2개 사단 해체로 종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천명의 장교가 전역 조치되었다(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 육군본부, 1970, p. 321, pp. 341~342).
81) 姜昌成, 《일본/한국 軍閥政治》(해동문화사, 1991) pp. 347~356.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박정희 소장은 1960년 5월 2일 군에 부정선거를 지령한 송요찬 육군참모총장의 퇴진을 요구함으로써 소장층의 정군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金炯旭에 의하면, 정군운동이 군부에 확산되어 가자 박정희는 金東河·李周一·金潤根 등 만주군 출신 비주류파와 蔡命新 등 민간인 출신 경비사 5기 및 金鍾泌 중심의 육사 8기 정군운동 세력을 쿠데타 주도세력으로 전환시켜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82]고 한다.

그러므로 5·16쿠데타 주도 세력[83]은 권력 핵심부의 주변에 있으면서도 정치권력 지향의 성격을 가졌던 분파를 기본으로 하여 ① 만주군 출신 중 서북파나 동북파에 가담하지 못한 중남부 출신 비주류파와, ② 인사에 불만이 컸던 경비사 5기 중 박정희와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던 자들, ③ 그리고 육사 8기 정군파 세력이었다. 동시에 ① 정군파와 만주군 출신 비주류파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파벌주의, ② 진급적체 현상의 심화에 따른 경비사 5기 및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한 불만의 증대, ③ 장면 정권의 10만 감군계획과 관련하여 장교단의 제도적 이익 손상 우려, ④ 박정희를 비롯한 '말썽장교' 예편계획을 위요한 정군파 장교들의 위기의식 고조 등의 추진요인(push out factor)이 군부의 정치권력 추구와 정치 개입에의 의지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하여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이 군부 내에서 권력 핵심부의 주변에 있던 정치권력 지향의 파벌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창군기 및 1·2공화국 군부의 파벌구조가 갖는 특성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군부 외적구조의 측면에서는, 남한을 친미 반공체제로 수립하려는 차원에서의 미 군정의 한국군 창설 방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다양한 출신의 군 간부를 충원하였던 데에서 군부 내의 파벌 형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정부수립 후 1공화국 시기에는, 이승만과 자유당에 의한 군의 정치적 활용을 목적으로한 주관적 통제가 군부 내의 파벌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공화국 시기에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비대화된 군을 감군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당시의 사회적 혼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집단이익의 위기의식이 커진 군부 내의 공감대 속에서 정군파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 기도를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군부 내적구조의 측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군의 외적요인과 더불어 군부 내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분파 대립이 파벌구조를 가중시켰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구직업주의 성향의 군인들도 있었지만, 자유당 시기의 정치군인들이나 5·16쿠데타 주도세력들과 같이 구직업주의가 아니라 신직업주의의 입장에 선 권력 지향의 파벌 세력이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장악하고자 기도하였던 것이다.

---

82) 金炯旭. 朴思越, 《金炯旭 회고록》 제1부: 5·16 秘史(아침, 1985) pp. 28~43.

83) 이 부분은 한용원, 〈韓國軍의 派閥構造와 民軍關係〉(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주최 제3회 민군관계 웍샵 발표논문, 1992. 5.1) pp. 4~6 참조.

Ⅳ. 결 론

본 연구는 1961년 이후 30여년간의 통치집단이었던 한국 군부가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고 정치화되어 정치에 개입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여 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제의 초점을 한국 군부의 정치 정향과 파벌성의 규명에 두고 그에 따른 군부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치 정향은 이를 다시 안보·안정·성장 정향으로 세분하고, 파벌성은 파벌 외적구조와 파벌 내적구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창군기 및 제 1~2 공화국 군부의 정치 정향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 군부는 미 군정의 친미·반공정책에 부응하여 민간부문과 군 내부의 좌익 배제에 동원되었고,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수호의 안보 정향을 견지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군에 대한 통제와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 주관적 문민통제 형태로서의 분리 지배와 각종 정치적 동원 방식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제의 보위에 주력하여야 할 군의 안정 정향은 정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이미 창군기 좌익 진압 시기에 싹트고 있었던 신직업주의적인 정치 정향을 조장하였다. 그리하여 자유당 정권의 주관적 통제로 인한 군의 정치화 현상과 민주당 정권 시기의 사회 불안정 및 감군 정책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부의 정치개입을 가져 왔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의 한국군은 미군을 통하여 습득한 근대적 기술·장비·조직관리 능력 등으로 인하여 민간 사회부문보다도 선진적인 과학·기술 능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군에 의한 국가 통치 및 관리능력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신직업주의와 연계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미 군정 하에서의 좌익 배제와 한국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형성된 국가 수호의 안보 정향이 다른 안정·성장 정향보다 강하였던 것이 이 시기 한국 군부가 보인 정치 정향의 특징이었다고 하겠다.

창군기 및 제 1~2 공화국 시기 군부의 파벌 구조가 가진 특성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군부 외적구조의 측면에서는, 미 군정의 한국군 창설 방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다양한 출신의 군 간부를 충원하였던 데에서 군부 내의 파벌 형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정부수립 후 1공화국 시기에는, 이승만과 자유당에 의한 군의 정치적 활용을 목적으로한 주관적 통제가 군부 내의 파벌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공화국 시기에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비대화된 군을 감군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당시의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집단이익의 위기의식이 커진 군부 내의 공감대 형성 속에서 정군파

주도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 의도를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군부 내적구조의 측면에서는, 군부 외적요인과 더불어 군부 내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분파 대립이 파벌 구조를 가중시켰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구직업주의 정향의 군인들도 있었지만, 자유당 시기의 정치 군인들이나 5·16쿠데타 주도세력들과 같이 신직업주의적인 권력 지향의 파벌 세력이 군의 주도권 장악을 기도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이제까지 고찰한 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우선 국가의 대외적 위기 극복을 위한 안보 정향의 차원에서 보면 군부의 국가 수호기능은 公益性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내적 위기, 예컨대 사회혼란 또는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동원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민주화를 저해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국내 통치 지향의 정치 정향을 지니게 됨으로써 군부의 기능은 私益性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군부 내 파벌성에 있어서 해방 이후 5·16군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군 통수권자에 의한 주관적 통제 형태의 분리 지배 방식이 파벌 구조를 심화시켜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파벌내적 역학 관계에서 정치권력 지향적인 파벌이 구직업주의 정향의 파벌을 압도하여 군부의 주도권과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양상을 보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1년 이후 집권한 군부 세력은, 안보와 성장 그리고 사회안정의 논리를 집권 유지 혹은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고 정치 지향적인 군부의 지지 하에 장기 집권의 지속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금후 통일과 민주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한국 군부가 지향할 좌표를 상정하여 본다면, 파벌성이 강한 자유당 정권 하의 국가 수호형 군부는 역사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군부체제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직업주의가 정착된 객관적 문민통제 유형의 군부가 이상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민통제 방식의 전제 하에서 과거 1~2공화국 기간 중에 나타났던 부정적인 民軍 關係를 지양하여 民軍 共助-民軍 一體化 관계 강화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강문구, 〈한국군부의 창설·변천과정-해방이후 한국전쟁기까지〉(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1) pp. 95～134.
姜聲才, 《참 軍人 李鍾贊장군》(東亞日報社, 1986).
姜昌成, 《일본/한국 軍閥政治》(해동문화사, 1991).
國軍保安司令部, 《對共 三十年史》(國軍保安司令部, 197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韓國戰爭史》 第1卷: 解放과 建軍(國防部, 1967).
_____, 《國防史》 1(國防部, 1984).
_____, 《韓國戰爭 要約》(國防部, 1986).
_____, 《國防史》 2(國防部, 1987).
國際問題硏究所, 《防衛年鑑 1945～1989》(國際問題硏究所, 1989) pp. 805～806.
軍史硏究室 편, 《國軍의 脈》(陸軍本部, 1992).
金敎植, 〈實錄 金昌龍〉(《月刊 朝鮮》, 1982.12) pp. 246～283.
金東成, 〈박정희와 통일정책〉(《現代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朴正熙와 5·16》 Ⅳ, 東亞日報社, 1990) pp. 215～239.
김영명 編, 《군부정치론》(녹두, 1986).
_____,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한울, 1985).
金潤根, 《해병대와 5·16》(汎潮社, 1987).
金在洪, 《文民시대의 군부와 권력》(나남, 1993).
金炯旭·朴思越, 《金炯旭 회고록》(아침, 1985).
金浩鎭, 《韓國政治體制論》(博英社, 1993).
朴正熙, 《國家와 革命과 나》(向文社, 1963).
_____, 《우리 民族의 나갈 길》(東亞出版社, 1962).
徐炳旭, 〈朴正照의 滿軍人脈〉(〈月刊 朝鮮〉, 1986.8) pp. 396～411.
안 진,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박현채 外, 《解放前後史의 認識》 3, 한길사, 1987) pp. 184～212.
梁炳基, 〈초기 韓國軍部의 형성과 政治化 양상〉(《國際文化硏究》 5, 淸州大學校 國際問題硏究院, 1988) pp. 203～226.
_____, 〈한국전쟁의 국내적 의의〉(《國際政治論叢 特輯: 韓國戰爭의 歷史的 再照明》, 韓國國際政治學會, 1990.6) pp. 320～332.
_____, 〈4월혁명의 역사성 논의 검토〉(《社食科學論叢》 第9輯, 淸州大學校 社會科

學硏究所, 1990) pp. 17～34.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육군본부, 1970).
陸軍本部, 《創軍前史》(陸軍本部, 1980).
陸軍本部 軍史硏究室 編, 《韓國軍과 國家發展》(花郞臺 硏究所, 1992).
陸士三十年史 編纂委員會,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陸軍士官學校, 1978).
육군사관학교 편, 《군대와 국가발전 : 자료집》(육군사관학교, 1981).
李敬南, 〈實錄·政治將軍 元容德〉(《新東亞)〉, 1982.12) pp. 110～140.
李基東, 《悲劇의 軍人들-日本 陸士 出身의 歷史》(一潮閣, 1982).
李基鐸, 〈박정희와 일본〉(《現代史를 어떻게 볼것인가》 Ⅳ, 東亞日報社, 1990) pp. 187～203.
이우영, 〈박정희 통치이념의 지식사회학적 연구〉(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1991).
張昌國, 《陸士 卒業生》(中央日報社, 1984).
趙甲濟, 〈李龍文 將軍 評傳 : 젊은 巨人의 초상》(서울 : 샘터, 1988).
_____, 〈「南勞黨과 朴正熙소령」 연구》(《月刊 朝鮮》, 1989.12) pp. 302～325.
_____, 《박정희 ① : 불만과 불운의 세월(1917～1960)》(까치, 1992).
崔章集, 《韓國現代政治의 構造와 變化》(까치, 1989).
韓國軍事革命史 編纂委員會, 《韓國軍事革命史》 第1輯(上)(韓國軍事革命史 編纂委員會, 1963).
韓國法制硏究會 編, 《美軍政 法令總覽》(韓國法制硏究會, 1971).
韓國革命裁判史 編纂委員會, 《韓國革命裁判史》 第1輯(韓國革命裁判史 編纂委員會, 1962).
한길사 편집실, 〈史料: 1950년대의 政治的 중요사건〉(陳德奎 外, 《1950年代의 認識》, 한길사, 1981) pp. 415～451.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韓鎔源, 《創軍》(博英社, 1984).
_____, 〈군부의 정치개입과 그 내부의 파벌〉(《廣場》, 1991 여름) pp. 122～147,
_____, 〈韓國軍의 派閥構造와 民軍關係〉(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주최 제3회 民軍關系 웍샵 발표논문, 1992.5.1).
_____, 《한국의 軍部政治》(大旺社, 1993).
合同通信社, 〈朴正熙 대통령年表〉(《合同年鑑 1980》, 合同通信社, 1980) pp. 107～108.
許 璋, 〈초기 군사제도와 軍部의 구조형성〉(崔章集 編, 《韓國現代史》 Ⅰ, 열음사, 1985〉 pp. 378～419.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Abrahamsson, Bengt. "Elements of Military Conservatism : Traditional and Modern"(M. Janowitz et. al., eds. On Military Ideology, Belgium : Rotterdam University Press, 1971).

Almond, Gabriel A. and Powell Jr., G. Bingham,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1966).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Civic Culture(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Finer, Samuel E., 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Second enlarged ed. Baltimore : Penguin Books, 1975).

Han, Sungjoo,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Berkeley : University of Berkeley, 1974).

Huntington, Samuel p.,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Cambridge, Mass. :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Kim, Se-Jin,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Chapel Hill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1).

Lieuwen, Edwin, "The Problem of Military Government"(Robert Wesson ed, New Military Politics in Latin America, New York : Praeger, 1982) pp. 1~16.

Nordlinger, Eric A.,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_____. "Solidiers in Mufti : The Impact of Military Rule upon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the Non-western States" (American Politiccl Science Review, vol. 64, December 1870) pp. 1131 ~1148.

Sivard, Ruth Leger,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91(14ed, Washington, D. C. : World Priorities, Inc., 1991).

Stepan, Alfred(ed.), "The New Professionalism of Internal Warfare and Military Role Expansion"(Stepan ed. Authoritarian Brazil: Origins, Policies, and Futur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7) pp. 47~65.

Suh, Byung-Hoon, "Structure and the Political Actor : An Interactive Perspective for Ideology and Economy in Four Military Regimes"(Ph. 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1987).